

류현진의 화려한 부활... 후반기 출발은 7이닝 완봉승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7이닝 완봉승을 거두며 시즌 9승째를 수확했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7이닝 완봉승을 거뒀다. 류현진은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텍사스전 더블헤더 1차전 선발 5-0 승리 이끌어 시즌 9승 따내...평균자책점 3.32로 끌어내려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 7이닝을 3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 막고 시즌 9승(5패)째를 따냈다. 투구수는 83개. 이중 스트라이크는 54개였다.

메이저리그 서번트에 따르면 류현진은 직구(30개)와 체인지업(24개), 커터(23개), 커브(6개)를 적절히 섞어 던졌다.

메이저리그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영향으로 더블헤더는 7이닝만 소화한다. 류현진의 역투에 힘입어 토론토는 더블헤더 1차전에서 텍사스를 5-0으로 물리쳤다.

7이닝을 홀로 책임지며 텍사스 타선을 무실점으로 요리한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3.56에서 3.32로 끌어내렸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완봉승을 달성한 건 통산 세 번째다. 가장 최근에는 LA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5월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9이닝을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잠재운 바 있다.

류현진은 올해 꾸준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6월 한 달간 5경기에서 2승2패를 거두며 평균자책점 4.88에 그치는 등 다소 부진했다.

결국 토론토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로비 레이를 선발로 내고, 류현진에게 두 번째 경기를 맡겼다.

‘1선발’ 자리에서 밀려난 류현진은 토론토 이적 후 처음으로 완봉승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출발이 산뜻했다. 류현진은 직구 4개로 뜬공과 땅볼 2개를 유도, 1회를 빠르게 삼자범퇴로 끝냈다.

2회에는 선두 조이 갈로에게 3루타를 맞았다. 안타로 처리할 수 있는 타구였지만 중견수 조지 스프링어가 타구를 뒤로 빼뜨렸다.

무사 3루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류현진은 존 힉스를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엘리 화이트를 1루수 뜬공, 데이비드 달을 삼진으로 잡아냈다.

3회는 2사 후에는 이시어 카이너-

팔레파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좌전 안타로 연결됐다. 후속 네이트 로와는 7구 승부 끝에 불넷을 허용했다.

2사 1, 2루에 놓인 류현진은 아를리스 가르시아를 상대로 삼진을 속아내 위기를 벗어났다. 조구 직구가 불이 들어갔지만, 이후 체인지업 3개로 연달아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4회와 5회는 삼자범퇴로 정리했다. 6회 1사 후에는 로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가르시아와 갈로를 연거푸 땅볼로 잡아내고 실점하지 않았다.

완봉승에 바짝 다가선 류현진은 7회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힉스를 3루 땅볼로 돌려세운 뒤 화이트와 달을 나란히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 마운드를 끝까지 지켜냈다.

토론토 타선도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토론토는 3회 1사 2, 3루 기회에서 마커스 시미언의 내야 땅볼로 선제점을 냈다. 이어 보비셋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2-0의 리드를 이어가던 5회에는 대니 캔슨이 좌월 솔로 아치로 1점을 보냈고, 6회 랜달 그리치의 희생플라이와 투어데스 구리엘 주니어의 땅볼로 5-0으로 달아났다.

뉴시스

‘어수선한 분위기’ 호응없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열릴까?

KBO 관계자 “코로나19 확산 추이 지켜보고 결정”

올스타전은 별들의 축제다. 팬들의 선택을 받은 리그 대표 스타들이 모여 축하를 받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막이 오르기도 전에 흥이 완전히 꺾였다. 24일 예정된 올스타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올스타전을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커지는 분위기다.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선수들의 물지각한 행동이 불씨가 됐다.

NC 다이노스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지난 5일 밤 서울 원정 숙소인 한 호텔에서 박석민의 지인 2명과 맥주를 나눠 마셨다.

사흘 뒤 지인 중 한 명의 코로나 19 감염 사실이 드러났고, 검진 결과 박석을 접촉한 박민우를 제외한 3명의 선수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두산 베어스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KBO리그는

전반기를 예정보다 1주일 먼저 끝냈다.

리그 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선수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번엔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일부 선수들이 NC 선수들과 비슷한 일탈 행위를 벌인 것이 확인됐다.

지난 16일 각 구단은 이를 처음 공개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튿날 거짓 증언이 곧바로 들렸다. 17일 한화와 키움은 각 구단 2명의 선수들이 짧게나마 한화의 원정 숙소인 한 호텔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혔다.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프로 선수들이 책임감도 없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일탈을 일삼았다는 데에서 팬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연루된 박민우와 키움 한현희는 2020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에서 자진 하차하기도 했다.

이미 돌아선 팬심을 붙잡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건 박수를 받기 어렵다.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받는 꼴이 될 수 있다. 나훈 올스타 사령관이 이번 사태의 시작이 된 NC의 이동욱 감독이란 점도 어색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KBO리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스타전을 개최하지 못했다. 2년 만에 올스타전을 열게 된 만큼 일찍부터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선수들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당초 KBO는 지난 12일 리그 중단을 발표하면서 24일 예정된 2021 올스타전은 무관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계권과 스폰서 계약 등을 고려했을 때 쉽게 취소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KBO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KBO 관계자는 “리그 순연 결정 당시 올스타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스타전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장애산악인 김홍빈’ 브로드피크 완등...8000m급 14좌 등정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이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산 해발 8047m급 브로드피크 완등에 성공했다. 장애인으로 8000m급 봉우리 14좌 완등은 김홍빈 대장이 처음이다.

광주시산악연맹은 김홍빈 원정대가 지난 18일 오후 4시58분(현지 시간)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장은 당초 17일 정상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등

“코로나19 고통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

정 일정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드피크는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 지대에 있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높다. 김 대장은 지난달 1일 광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브로드피크 원정대 발대식을 갖고 정상 도전에 나섰다.

원정대는 김 대장을 주축으로 류재강 등반대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으며 같은달 14일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28일 베이스캠프를 꾸렸다.

이어 길기트 동쪽 케이투봉 북동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 산맥 제3 고봉을 코스로 설정한 뒤 정상 도전에 성공했다.

브로드피크 등정은 지난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성공으로 김홍빈 대장은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김 대장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단독 등반 중 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2006년 가셔브롬 2봉(8035m)을 시작으로 15년에 걸쳐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에 모두 올랐다.

광주시산악연맹 관계자는 “김홍빈 대장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등정 소감을 현지에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전남 U-18 광양제철고, 추계대회 출전 “대회 2관왕 노린다”

전남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이하 전남 U-18)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남 합천에서 열리는 2021 추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출전한다.

전남 U-18은 지난 5월 열린 제42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에서 전북 U-18(영성고)을 1-0으로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우승 이후 리그에서도 2승 1패로 상승세를 타던 전남 U-18은 그룹 내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 그러나 전반기 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하며 후반기 리그에서 그룹 B에 속하게 되었다.

리그에서 아쉬움을 남긴 전남 U-18은 이번 여름 추계대회와 K리그 U-18 챔피언십을 통해 다시 도약하겠다는 각오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 U-18은 지난 16일 금요일 18:40에 열리는 김제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8일 일요일 광운 전자공고, 20일 화요일 경북오상고와 조별 예선을 치른다. 조별 예선 후에는 24강부터 결승까지 1, 2일 간격의 빠른 한 일정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48개 팀 중 전남을 비롯해 안산, 충남아산, 부천, 대전, 대구, 경남 등 총 7개 K리그 구단 유스팀이 참가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천재 소녀’에서 대들보로...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

중학교 3학년 첫 태극마크 한국 선수 첫 BWF 신인상

특출한 선수들만 모인 국가대표 내에서도 어려웠을 때부터 ‘천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이들이 종목별로 1~2명씩은 존재한다. 현재 여자배드민턴 대표팀 단식 주자인 안세영(삼성생명)도 그 중 한 명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체육을 즐기는 부모님을 따라 코트를 기웃거리다가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을 접한 안세영은 이후 본격적인 엘리트 선수의 길로 들어섰다.

기량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성장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공부로는 세계 1등을 못하는데, 배드민턴으로는 시켜줄 수 있다”는 초등학교 시절 감독의 설득에 다시 마음을 다졌고, 중학교 3학년 때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다.

2008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 이후 실로 오랜 만에 탄생한 중학생 국가대표였다.

안세영은 쟁쟁한 언니들 사이에서도 주목 받지 않았다. 여러 대회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내면서 세대교체의 선두 주자로 급부상했다.

2019년에는 세계배드민턴연맹



◇안세영 프로필

▲생년월일 : 2002년 2월5일 ▲신장 : 170cm ▲몸무게 : 62kg ▲학력 : 풍암초-광주체중-광주체고 ▲소속팀 : 삼성생명 ▲주요이력 : 20189 BWF 월드투어 뉴질랜드 오픈 단식 우승, 2019 BWF 프랑스오픈 단식 우승, 2019 BWF 신인상

(BWF) 월드투어 뉴질랜드오픈과 프랑스오픈 여자단식을 제패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해에만 5개 대회에서 정상을 밟아 배드민턴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

진 안세영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BWF 신인상까지 거머쥐었다.

만 19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탄탄한 커리어를 구축한 안세영은 올 여름 도쿄에서 또 한 번의 대항사고를 준비한다. 세계랭킹을 8위까지 끌어올린 안세영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 하지만 당장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한국 여자 단식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방수현 이후 20년 넘게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올 여름 안세영이 갈증을 날려줄 수도 있다.